

## 25년 2월 목회일정

2일(주일)	정기제직회
9일(주일)	성찬가족심방
1-2월(오후)	<기도 : 우리의 생명, 우리의 송영>강설
7(금)-8일(토)	두교회 중고대연합수련회(송정 호호하우스)
22일(토)	유년주일학교 겨울성경학교(예배당)
3일(월)	동래시찰회 신년인사회(십자가교회당)
7일(금)	신학생유치위원회(거제교회당)
23일(주일)	덕계중앙교회 헌신예배인도

## 주간소식

- 환영합니다** 예배에 처음 나오신 분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담임목사를 만나시고, 돌아가세요
- 성찬예식** / 매일 예배와 성찬상을 위하여 자신을 살핍시다.  
[본 교회 당회의 허락을 받은 입교인이 참여합니다]
  - 오후예배헌금** / 장학목적(고려신학대학원)
  - 정기제직회** / 다음 주일 모든 순서 후에 있습니다.
  - 기부금영수증** / 필요하신 분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세요.
  - 세속명절** / 주간 중에 설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되세요.
  - 가정(개인)기도회** / 밴드에 올려지는 아침묵상과 기도제목, 주  
보의 [설교요약지], 가정성경읽기 등을 참고하세요.

\* 2월 예배봉사자 / 교회소식-김영민 봉헌-구성본 안내-최진언

### \* 두 교회 중고대연합수련회

- 주제 : [그리스도인이 바라보는 젠더(gender)]
- 일자 : 2월 7(금)- 8일(토) - 장소 : 송정 호호하우스펜션
- 강사 : 양주동 목사, 김우곤 전도사

한 주간도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전투적인 사명을 다 하며 승리하는 삶 되세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소속으로  
1997년 1월 개혁주의교회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위해 예배 안에서 참된 교회의 3가지 표지인  
① 진지한 말씀의 강단 구축(설교, 강독)  
② 성례의 정확하고 성실한 거행(세례, 성찬)  
③ 정당하고 올바른 권징의 시행(권고, 치리)을  
애쓰며 노력하는 언약공동체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 동래언약교회 집회안내

주일 예배	오전	11:00
	오후	15:00
주간 기도 회	아침기도	06:00(월-금)
	수요기도회	09:30
	금요기도회	21:00
	지역기도회	각지역결정
교회 학교	유/SFC	주 13:00
	교회알기	주 13:30
	청년회	주 14:00

## 이 달의 봉사자

	01월	02월
교회소식	고충석	김영민
봉 헌	김낙형	구성본
안 내	조안나	최진언

## 평균케 하는 원리

후원	개혁정론(고신 개혁 언론)
	파서교회(고신, 강인중)
선교	외국인근로자선교(이요한)
	김성욱선교사(특수지역-M국)
구제	곡성연화교회(최지혁)
	부산장재인전도협회(정용균)
장학	고려신학대학원(기동연원장)

## 교회봉사자

- 시무목사 / 최성림 양주동
- 시무장로 / 김영민 고충석
- 시무집사 / 이경준 김낙형
- 반 주 / 문경실

주후 2025.01.26.(제29-04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의 터 위에 든든히 서 가는 교회(행20:32)



대한예수교  
장로회

# 동래언약교회

DONGNAE COVENANT *presbyterian* Church

## 주일오전예배

오전11시

인도 최성림 목사  
설교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 개회

\* 예배에로의부름 ↑ 시 121: 1-2(교송)  
인도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회 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로다.

\* 축복의인사 ↓ 고전1:3(인도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 경배찬송 ↑ 찬송59장(4)

## 죄의고백

\* 십계명봉독 ↓ 출20장(전계명/교독)  
\* 죄의공적고백 ↑ 제 7형  
\* 용서의은혜의선포 ↓ 인도자  
\* 감사찬송 ↑ 찬송65장(2a-2b)

##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히10:36, 창25:19-26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가363장  
설교 ↓ 설교자

## 이삭의 기도

아멘 송 ↑ 찬송가643장

## 성례시행

세례식 ↓ 필요시 시행  
성찬식 ↓ 초대 신앙고백 찬송가230장(3-4) 구제헌금 분병 분잔  
목회기도 ↑ 설교자

## 봉사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105편(1-5)

##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는 일어서서(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가셔도 됩니다)

47739

부산시 동래구 명륜로 261-1

예배당 051) 558-4890

목사관 010-4564-4890

www.dcpchurch.com

주일오후예배	오후 3시	인도 설교	양주동 목사 양주동 목사	주간기도회	
				아침기도회 월~금 6시(교회밴드) 요한복음 묵상 인도 : 최성림 목사	
교회소식		개회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전 9:30(예배당) [나의 이름을 위한 집] 인도 : 최성림 목사	
* 예배예로의부름 ↑		시134:1,3(교송)			
인도자: 밤에 여호와와 집에 섰는 여호와와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회 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찌어다					
* 축복의인사 ↓		벤후1:2(다함께)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 경배찬송 ↑		찬송 2장			
		신앙고백			
* 신앙고백 ↓		니케아신경			
* 감사찬송 ↑		찬송가548장(4-5)		금요기도회 금요일 21시(예배당)	
		말씀봉사			
설교를위한기도 ↑		인도자			
성경봉독 ↓		엡 6:1-3			
교리문답교독 ↓		하이델베르그104문답			
선포를위한찬송 ↑		찬송 9장(1-2,8)			
설교 ↓		설교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아멘송 ↑		찬송가643장			
		자비사역			
봉헌및봉헌찬송 ↑		시편103편(6-8)			
		폐회			
* 강복선언 ↓		설교자			

주일	수 10-12	마 17
월	수 13-15	마18:1-14
화	수 16-18	마18:15-35
수	수 19-21	마 19
목	수 22-24	마 20
금	삿 1- 3	마 21:1-22
토	삿 4- 6	마21:23-46

주일설교를 기억하며(이삭의 기도)

1.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따라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고 기도하는 교회되게
2.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약속이 이뤄지길 인내로서 기도하게
3.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심을 알고 주의 뜻 기다리는 교회되게

고려신학대학원(원장 : 기동연 교수)

1. 신학교를 통해 교회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세우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배출되게
2. 진리파수의 요새가 되어 바른 신학을 전수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3. 교수들의 신학과 삶이 신학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고신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워가게

고려학원을 위하여

1. 고신대학교의 구성원들이 하나되어 이 학교를 통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하게
2. 신대원이 이 세대를 깨울 신실한 말씀사역자들을 배출하여 고신교회가 이 세대를 변화시켜가게
3. 복음병원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사명감으로 의술을 감당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직임감당하도록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

1. 김해개혁장로교회와의 교회연합을 위한 진행들이 신앙의 동역을 통한 위로와 기쁨이 넘치도록
2. 당회가 개혁신앙과 바른 교회관을 가진 교회들과의 건전한 연합과 교제를 위해 늘 기도하게
3. 교회가 장로교회로서 바른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해 교회의 질서와 원리들을 바르게 다져가도록

더 큰 명절(전에 쓴 글)

명절이 좋은 것은 흠어져 있던 육신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겠지요. 이번 설에도 본가나 처가나 흠어진 형제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어 참 좋습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바쁜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이제 출가한(또는 집에 있는) 자녀들이 그날에 올 것을 한껏 기대하며 음식을 장만하고, 자녀들의, 또 손자들의 잠자리를 살피고, 순간순간마다 사뭇 흥분된 마음으로 자녀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겠지요.

성도들에게 가장 큰 명절은 [주의 날]이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매주일 명절을 맞이합니다. 이 날은 흠어졌던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하고 어머니 교회의 품 속에서 서로 사랑과 화평을 나누지요.

교회의 직분자들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흠어졌던 형제자매들이 명절에 모이는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묵사는 가족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기 위해 하나님의 집의 공간에 있는 양식들을 가져와서 요리를 합니다(마 24:45) 그때 그의 마음에는 온 형제 자매들의 얼굴이 다 떠올리며 분주한 마음으로 성도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말씀을 요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3장 밍에 마 5장의 국을 곁들여야 겠다. 참 이 국에는 고후 9장 양념이 좋겠지! 참 셋째가 이번에 몸이 많이 허약해졌던데, 여기에는 삼상 30장이 좋다고 했지. 억지로라도 먹여야지.”

장로는 형제자매들이 아무런 걱정없이 한 상에 둘러 편하고 안전하게 즐겁게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만들어 놓은 음식들(설교 성례)이 다 건강에 좋고, 맛도 좋은지 살펴야겠네. 혹 형제들 간에 우애를 상할 만한 일은 없었을까? 또 집안에 어디 모난 부분은 없는가?(권징)” 구석구석 살피면서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이 명절을 맞이하고 또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집사는 혹 형제들 중에 어려움을 당한 이가 없는지 살핍니다. “큰 애 집의 아이가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다는데, 등록금이라도 있나 몰라? 물어보아야겠네. 둘째 며느리가 지난 주에 많이 아파 몸이 허해졌을 텐데 영감한테 이야기해서 도울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아야겠다. 아이들 중에 가장 공부하기 싫어했던 셋째가 이제 마음잡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 이번 명절엔 음식을 좀 많이 싸줘야겠다”

저는 설이나 추석보다, 아니 성탄절이나 부활절, 추수감사절보다 더 큰 명절이 바로 매주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명절연휴에 주의 집으로 아버지께 예배하기 위해 나아올 성도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며, 안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바쁘지만(육신의 형제들 만나보라!!!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만날 준비하랴!!!!!!) 그래도 마음이 흥분되는 건 내 신랑이신 하나님을 통해 낳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보고 싶은 마음이겠지요.

매주일 예배에 나갈 때 아버지를 뵈고 어머니의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보호를 받을 것과 사랑하는 형제자매를 만날 기쁨으로 나간다면 정말 좋겠조!!!!!!

설날보다 더 큰 명절인 주의 날을 항상 준비한다면 영광스러운 그 날에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겠조!!!!!! 살롬

신명기 21장에서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나옵니다. 그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을 장로들에게 데리고 갑니다. 재판 결과, 아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을 거역한다고 해서 꼭 죽일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그는 단순히 부모의 말을 거역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 전수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길게 살지 못하고 추방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모는 자신에게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부모입니다.

부모에게 맡겨진 권위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상당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신실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자녀를 약속의 땅에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제5계명은 자녀에게만 요구되는 명령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요구되는 명령입니다.

2. 실제적인 예시

요리문답은 부모만이 아니라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대해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이는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에서도 가르치는 바입니다. 부모 뿐 아니라 여러 권위가 있겠지만, 그에 앞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불순종”해도 괜찮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일을 지시할 때에 자녀를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나치게 반항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1) 남편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세우신 가장입니다. 세상은 돈을 많이 벌거나 주도권을 가진 사람을 가장으로 여깁니다. 아닙니다.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아담이 아내를 지키지 못했을 때에 이 세상에는 죄가 들어오고 인류를 타락했습니다. 그만큼 가정의 권위와 책임은 중요합니다.

2) 사회에 세워진 권위가 있습니다. 학교, 직장, 그리고 국가에 세워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대체로 불신 권위자가 있을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는 위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합니다. 불신 권위자이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분임을 기억하고 우리는 복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들은 신앙에 반하는 명령에는 불복했지만, 그 외에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했습니다. 사회의 권위자를 공경하는 일에는 분별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3) 교회의 직분자도 부모입니다. 성도들은 직분자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지도를 받아서 가정의 남편과 아버지들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하십니다. 아멘.

동래연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1월26일 주일오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363장
성경봉독	.....	창25:19-26 히10:36
설 교	이삭의 기도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 “하나님께서서는 성도의 인내와 기도를 통하여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이삭은 태의 문이 닫혀진 아내를 위하여 20년 동안 기도하였습니다.

1. “약속을 따라 기도하는 이삭”

왜 이삭은 그의 아내 리브가가 20년이 지나도록 아기를 낳지 못함에도 그녀를 포기하지 않고 위하여 기도하였을까요? 그것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취한 며느리이기 때문입니다.(창25:20, 참22:20-23)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자신이 떠난 이역만리 하란 땅에 살고 있는 썸의 계보 아람족속 중에서 찾은 이유는 언약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입니다.(행7:2-3) 곧 데라의 아들들, 곧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과 하란도 아브라함이 가진 언약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창24:7)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이삭의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음으로 자기의 생명이 보존되는 것(부활)을 깨달았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부활을 경험했을 때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는 약속을 받습니다.(22:17)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에게 올 때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24:60) 이삭이 생명을 보존하고, 그의 씨가 천만인의 조상이 되고, 대적의 문을 얻는 길은 리브가와 이 결혼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가진 이 부부가 결혼한지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끊어질 위기가 닥친 것이고, 뱀의 머리를 짓밟을 여인의 후손이 나올 길이 막히는 것입니다. 이쯤되면 리브가가 과연 하나님의 택함받은 여인인지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이삭의 기도가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아버지와 달랐고, 리브가는 그 시모와 달랐습니다.(참, 창16장).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주신 약속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음으로 20년을 한결같이 참고 기다리며, 다만 오직 아내 리브가를 위하여 야웨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의 이 간구는 20년 가까운 긴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시험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 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험을 다만 기도로 그 아내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잘 치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함이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히10:36)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선포되어 지는 순간 성취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이루시는 방법과 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약속의 풍성함을 누리는 일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하시며 인내하도록 이끄십니다.

2. “약속을 따라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삭의 기도예 속히 응답하셔서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케 하셨습니다. 불모의 땅에 씨가 떨어져 싹이 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씨를 통하여 당신이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의 씨가 창대하게 하실 것이며, 그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창12:1-3) 또한 이삭과 리브가를 통하여 태어날 아이는 “대적의 문을 얻을 아이입니다”(창22:17, 24:60)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씨, 곧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씨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를 깨닫고 말했던 것처럼 “여럿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갈3:16)를 통하여 이루실 약속들입니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을 때에 그분은 과연 대적의 문, 곧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을 하나님의 교회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로 복을 얻게 하시며 천하만국에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천하만민이 주의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기도를 통하여 성취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시는 일에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어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에 성도의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은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때는 우리의 생각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가장 빠른 때입니다.(시90:4) 믿음의 선진들은 천년이 하나님께 있어서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 순간일 뿐임을 알았기에 친히 그 약속을 이루시기까지 다만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우리의 생각하는 것처럼 빠르지 않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그 택하신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잉태치 못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서 생명의 보존과 번성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교회는 주님의 집이며, 나라입니다. 주님의 집은 주님의 능력과 권세로 다스려지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씨의 잉태와 출산을 통하여 자라갑니다. 교회는 다만 바른 복음전도를 통하여 많은 언약백성을 잉태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기다리는 일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시42:3).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자에게 선한 손을 베푸시며 약속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분인 줄 알고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아멘

동래언약교회 가정기도회[2025년 1월26일 주일오후]

신앙고백	.....	사도신경
찬 송	.....	찬 550장
성경봉독	.....	엡 6:1-3
설 교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부모대독
기 도	.....	부 모
주기도문	.....	다 같 이

주제: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셨습니다.”

104문: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윗사람이 힘을 가지든, 아랫사람이 힘을 가지든 세상에서는 권위를 힘으로 여기고 자기에게 이롭도록 사용합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공경하지 못해서, 윗사람은 부당하게 권위를 사용해서 “권위의 상실”이 일어납니다. 제5계명은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권력’은 다른 사람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권위’도 비슷하게 사용되지만, 요리문답은 권위와 권력을 구분합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권위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겁니다.

5계명은 ‘효’와 다릅니다. 단지 부모를 존중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에게 신앙이 전수되게 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5계명은 다른 계명과 달리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엡 6:2).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출 20:12).”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생명이 갑니다. 보상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부모를 공경한다고 해서 장수할 수 있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십계명을 받았을 때에는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이었습니다. 물론 들어가서도 다른 족속들의 침략을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습니다. 부모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순종하는 법을 배웁니다. 결국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복을 누리며 생명이 길게 됩니다.